

# “금방 준비된 따뜻한 밥 한끼를” 익산시 보건 평가 8관왕 쾌거

### 보건지원 3개 · 보건사업 5개 분야에서 우수 · 유공기관 선정

익산시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보건사업 평가에서 8관왕을 달성하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우뚝서고 있다.

지난 7일 보건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사업 평가에서 유공 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8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보건지원 3개, 보건사업 5개 분야 등이다.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으며 국가 한의약 및 건강검진 사업과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은 전라북도지사 주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도내 최초

로 시작한 한방난임치료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혜택으로 사업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사업성과에 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은 도지사 유공기관, AI·IoT어르신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건강증진개발원장 유공기관에 각각 선정되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초기부터 체계적인 접종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평균 접종률을 상회하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3차 접종률 역시 40%를 넘어선 상태이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직원들이 일구어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익산시가 대한민국 건강도시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기자

### 익산 '나눔+곳간'으로 위기가구 지원 강화...가구 당 2회로 확대

익산시가 올해 지원 규모가 한층 확대된 나눔곳간 시즌 2 '나눔+곳간'으로 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

시는 효율성을 높인 나눔+곳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위기가구를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시는 올해부터 기존보다 운영 횟수와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 나눔+곳간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곳간 이용 횟수가 가구 당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생계가 어려운 시민이라면 간단한 신청서 작성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했으나 실질적이나 휴폐업 소독감소 등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겨동이 불편한 시민들에 대한 배달 서비스도 개선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눔+곳간 이용 신청 시 신청서에 배달 여부를 체크하고 배달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게 변경했다.

나눔+곳간과 함께 밥차도 운영한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부속종합복지관이 행복나눔마켓·뱅크 일원에서 1주일에 1회, 매일 4회씩 정기적으로 밥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나눔+곳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사가 곳간에 상주해 이용객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후 즉



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설문조사로 곳간 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1만 4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나눔곳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가 넘는 이용자들이 나눔곳간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그 중 대부분의 응답자가 실질적인 위기가구에 처한 시민들이 이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는 앞으로도 기부된 금품으로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에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많은 시민들의 동참으로 나눔곳간에 10억여원이 넘는 성품들이 기부됐고 1만6천여 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8억여원의 물품이 지원된 바 있다.

## 군산시, 데이터 활용 적극행정 '최상위 우수기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군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지난 2020년도 12월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해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2021년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점검단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됐다.

군산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0개 우수기관에 포함됐으며 우수기관 평균(83.29)보다 월등히 높은 93.55점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최상위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특히 기관 간 공동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발굴·가공·등록을 평가하는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수행, 정책 활용을 평가하는 '데이터 분석·활용', 기관 내 데이터 활용 역량을 평가하는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는 2022년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신청기한은 오는 1월 말까지로 대상자는 군산시를 차량사용 분까지 주소로 두고 있는 경우차에 부과되며, 연납분 부과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로 하면 된다.

납부는 발부받은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확대

### 익산시, 생생카드 대상 확대...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익산시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작업능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의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작업대, 충전식분무기, 충전문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요도 높은 기종을 추가하여 편의장비를 기존 5종에서 6종으로 늘리고, 농업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와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생카드는 지역농협에서 발급(15만원/연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유휴·사형성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러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를 포함한 영농 작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농가 도우미 인건비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직장 재직자·사업자 등록자 등 겸업 농업인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지원 단기는 기존보다 1만원 인상된 1일 8만원으로 최대 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각 사업의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자부담액, 신청서류 등은 시 미래농협에서 발급(15만원/연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유휴·사형성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익산=이득훈기자

가능하다.

이러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를 포함한 영농 작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농가 도우미 인건비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직장 재직자·사업자 등록자 등 겸업 농업인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지원 단기는 기존보다 1만원 인상된 1일 8만원으로 최대 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각 사업의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자부담액, 신청서류 등은 시 미래농협에서 발급(15만원/연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유휴·사형성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익산=이득훈기자

## 군산시 박중훈세무사, 우수 마을세무사 도지사 표창

군산시 마을세무사로 무료 세무상담 활동을 이어온 박중훈 세무사(가교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2021년도 우수 마을세무사로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포상은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업자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중 우수한 자를 포상해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세무사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

작된 시 마을세무사 제1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제 및 지방세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며 마을세무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군산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군산시 세무사협의회 회장 역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정발전에 헌신을 다해 이 같은 영예를 안게 됐다.

박 세무사는 “군산시 마을세무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작은 재주지만으로도 재능기부를 통해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세금문제 해결사 노력을 특출히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지역 소식통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신청 접수

군산시는 2022년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신청기한은 오는 1월 말까지로 대상자는 군산시를 차량사용 분까지 주소로 두고 있는 경우차에 부과되며, 연납분 부과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로 하면 된다.

납부는 발부받은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 익산시, 장학수 신규 입학생 선발

익산시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해 흥제행복기숙사 익산장학수 입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익산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이다. 올해는 12명(남학생 4명, 여학생 8명)의 입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생 1인당 월 14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입사 신청 접수는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장학재단 홈페이지(www.ilsa.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익산시장학재단(☎063-859-5152/5159)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14년 개관한 한국사회진흥재단 흥제기숙사는 서울특별시 흥제동(서대문구 송추길 62)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7천811㎡(지하 1층 지상 7층 1개동)의 규모이다.

/익산=이득훈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